

베네수엘라, 총파업으로 정국 긴장 고조

베네수엘라 반정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**反 차베스 세력**은 2002년 12월 2일 오전 6시를 기해 차베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**총 파업에** 돌입하였음. 이에 대해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까지 예정된 자신의 임기중 조기 대선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, 거리 시위에 대해서 **유혈진압**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.

□ 총파업 결의의 배경

- 이번 파업은 금년 들어 4번째 총 파업으로 반정부 세력이 기대를 걸었던 차베스에 대한 일련의 탄핵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자, 반정부 세력이 **본격적인 실력행사에** 나선 것으로 분석됨.
- 그동안 반정부 세력은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4월 11일을 기념하여, **매달 11일을 반정부 시위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** 왔음.
-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 200만명의 국민청원으로 국가선거위원회가 2003년 2월 재신임 투표를 결정하였으나,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.

□ 극단적 대처와 경제난으로 국가 위험도 상승

- 반정부 세력의 요구에 대한 차베스측의 입장은 단호함. 차베스는 임기중 **조기 대선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**, 카베요 내무장관은 파업을 빙자한 거리 시위를 쿠데타 기도 음모로 규정하고, **베네수엘라 2002년 4월 11일의 유혈사태를 다시 맞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.**

- 한편, 차베스는 4.11 쿠데타 발생 이후 경제정책에 있어서, 세수부진에도 불구하고,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**각종 선심성 정책을 지속,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.** 이에 따라 S&P가 동국의 신용등급을 B에서 B-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는 등 **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잇따르고 있음.**

□ 주변국에 대한 영향과 전망-사회주의 세력의 확장

- 베네수엘라 정국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련국가들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. 베네수엘라는 세계 5위의 산유국가이자 **미국에 대한 4번째 원유공급국가로, 급변 총파업에 국영석유회사(PDVSA)가 동참하고 있어, 원유생산이 중단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.**
-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, 미주기구(OAS)와 카터 전 대통령을 동원, **중재에 나섰으나 무위에 그친바 있음, 한편, 34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콜롬비아도 베네수엘라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될 경우 악영향이 예상됨.**
- 무엇보다 **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의 확대임.** 최근 브라질 및 에콰도르의 대선에서 좌파후보가 당선됨으로써, **중남미는 쿠바, 베네수엘라, 에콰도르, 브라질을 연결하는 사회주의 축이 형성됨.**
- 미국은 이들 국가가 차베스 정권이 표방하는 **빈민층 위주의 선심성 정책(‘볼리바르 혁명노선’)을 답습할 경우 유사한 정정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.**

문의처 : 책임조사역 배상욱 subae@koreaexim.go.kr